믿고 시인하여 쓰나미 막아내기

(롬10:1~15)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고 시인하여 쓰나미 막아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참 신앙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본문에서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뜻이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산다는 게 무엇일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한 열심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호한 각오가 필요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뿐이지마는 쓰나미를 혼자서 막아내는 것과 같은 엄청난 결과가 빚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쓰나미 혼자 막아내기'에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마는 쓰나미를 나 혼자 막아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 바로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의 참 뜻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04년 12월 26일 오전 7시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이래 가장 큰 쓰나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10만 명이 넘는 가장 큰 사상자가 발생했고, 주변국들을 통틀어서 말하자면 3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큰 쓰나미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일본 동쪽에서 발생한 쓰나미를 우리가 뉴스로 보았어요.
그래서 제방을 넘어오는 그 쓰나미 물살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일어난 쓰나미의 한복판에서 살아난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실화를 근거로 2011년에 "The Impossible"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실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영화를 한번 보았습니다.
일본 동쪽에서 일어난 쓰나미 때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쓰나미가 뭔가를 실제로 보긴 했습니다만, 그 쓰나미에 사람이 휩쓸려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가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가 2004년에 이 수마트라 섬 앞바다에서 일어난 쓰나미에 의해 휩쓸려간 사람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끔찍해요, 끔찍해!

어떻게 한 가족(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아들 셋)이 살아남았는지, 그래서 제목이 "The Impossible"인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지요.
영화에서 그 엄마가 쓰나미에 휘말려 들어가서 물속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수중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마트라 섬의 쓰나미의 해일은 30미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변으로 밀려들어올 때의 속도는 시속 800km, 그러니까 제트여객기 타고 미국 갈 때의 속도와 똑같은 거예요.
즉, 30미터가 넘는, 아파트로 말하면 15층이 넘는 그 높이의 해일이 시속 800km 제트여객기의 속도로 밀고 들어올 때 무엇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인 엄마의 허벅다리의 살이 A자로 찢어져 나와서 너덜너덜한 것이 영화장면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통나무 하나가 물살에 휩쓸려가면서 살짝 툭 친 겁니다.
쓰나미 때에 사람이 죽는 게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쓰나미로 인해 파괴되어진 지붕 조각이라든지 하는 파편들이 800km로 밀려드는 쓰나미의 속도에 밀려오다가 멈춰있는 사람을 덮칠 때 그 파편들이 사람을 치고 찌르고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나미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는 것, 이런 쓰나미가 우리 일상에서는 날마다 닥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의 차원을 두고, 더군다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신앙의 대전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을 휩쓸어가는 대규모의 쓰나미가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갈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한 쓰나미는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쓰나미를 내가 혼자 막아내는 겁니다.
쓰나미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현대 과학으로는 없습니다.
오직 도망가서 피할 수 있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트여객기의 속도로 30미터가 넘는 해일이 덮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일 속에는 이미 망가지고 파괴된 수많은 건물과 물건들의 파편조각들이 800km로 밀려드는 그 쓰나미 속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막을 길이 없어요, 빨리 있는 힘을 다해서 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휩쓸고 들어오는 쓰나미는 우리가 혼자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쓰나미 앞에서 방파제로 막듯이 막아내고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그 마음을 향해 다가오는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대전제를 뒷받침해주는 성경구절을 한번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또 잠언 16장에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마음자체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붙어있게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날마다 이 쓰나미로부터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막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쓰나미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care 해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을 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것도 아니고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서 쓰나미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다 압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빠져도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빠져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강조하기 위해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했다고 보면 안 돼요, 다른 겁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내용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유로 말하면 결혼식과 같은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는 기혼자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결혼한 자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은 그 상태에서 나가서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기도하면서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사도바울이 동족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에 따른 열심이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저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
십자가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열심이 극심했지만 문제는 마음으로 믿기가 안 됐다는 얘깁니다.
그 마음으로 믿기가 뭘까요?
우선은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은 나중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합해지고 일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몸에 나타나서 행동을 하게 되면 되니까,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였지요?
마음을 주는 겁니다, 내 마음 관심을 그쪽으로 쏟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육체가 만나는 대상,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동료일 수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도 상황을 접합니다, 경제가 안 좋다, 주식이 계속 하락세에 있다,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다, 일본이 어떻다, 이런 모든 것들을 육체를 통해서 마음이 접하게 됩니다.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접하는 이런 모든 대상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대상들이 내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온다 이겁니다.
도대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대전제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심거리들이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는 이 오감을 통해서 내 마음에 쇄도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일, 마음을 주는 일, 이게 바로 믿음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눈으로 좋은 차를 보았다, 저 차를 갖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소원이 왜 생깁니까? 저 차를 타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저 차를 타면 마음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 차를 타면 좋을 것 같고 기쁠 것 같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차를 믿는 거예요, 그 차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믿는 거예요.
돈을 좀 벌면 내 마음이 기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을 믿는 겁니다.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나서 부흥하게 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불만입니다.
그 좋은 차가 없는 지금은 불만이고 돈이 원하는 만큼 없는 지금은 불만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있으면 기쁘겠다,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예수님만 계시면 내 마음이 만족하겠다고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겠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겠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나 하면, 5감으로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대상들에게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빼앗기는 양태가 다양합니다, 길게 지속적으로 뺏기기도 해요.
세상에서 말합니다, '비전을 가져라'
5년 뒤의 비전, 10년 뒤의 비전, 이건 마음을 뺏기라는 얘기에요.
비전에 마음을 뺏기라는 얘기이므로 이건 완전히 악의 속삭임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내 마음에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의 근거로 삼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혼자서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열손가락 가락지를 끼고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껴안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기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건강도 별로이지만, 승진도 안 되고 있지만, 자식도 말썽이지만, 그 모든 게 다 무슨 문제냐? 거기에 마음을 빼기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마음으로 껴안아서 내 관심의 모두를 십자가 예수님께 쏟아 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과정이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게 됩니다.
십자가를 껴안고 있는 동안은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감을 통해서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는 모든 대상들이 내 마음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내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죽는 것을 끝납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내 마음이 드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기는 뭡니까?
혼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열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껴안았잖아요?
그래서 5감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관심을 빼어가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 열손가락으로 십자가예수님을 껴안은 상태로 나가서 사는 겁니다.

자, 내게 주어진 상황이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입으로 시인하면서 산다는 말은, 그 경제적으로 나를 압박하는 상황보다도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신 사건이 더 먼저 있는 사건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먼저 껴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을 껴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먼저 껴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인 아닙니까?
진짜 삶의 현장에서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삶에 나가서 더 강력한 쓰나미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죽은 자로 고백하게 될 때,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라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죽은 자로 나를 여김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 삶 안에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이 돈 벌려고 노력했던 것의 백분의 1만, 아니 천분의 1만 있어도 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경험적으로는 단번에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껴안고 버티는 일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어가는 대상들의 쓰나미로부터 지켜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적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열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십자가 주님을 껴안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마음을 빼어가는 모든 강력한 쓰나미들로부터 나를 지키게 하시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